



제 4단계: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

"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만남"

요 4: 1-42

2009. 7. 15(수), 18(토) 강사: 박원호 목사(주님의교회 담임)

1. 요한복음 4:1-42절의 분석

- a. 3-6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심.
- b. 4: 4-6절 : 주님께서 지치신 채 우물가에 앉으심.
- c. -18 사마리아 여인이 놀람.
- d.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(19-24).
- c'. 4: 25-34 제자들이 놀람.
- b'. 4: 35- 38 타인들이 수고하고 당신도 그들의 수고에 참여함.
- a'. 39-42 사마리아인들이 믿음

- b의 주님의 피곤하심과 b'의 수고가 연결됨.
- 놀람의 요인들 (c and c')
-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4:39-42절.
- 많은 사마리아인들이,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함.

* 교차의 핵심: 예배의 장소
(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
가장 근본적인 차별의 이유)

2. 배경

- 요 8: 48에 나타난,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적대감.
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귀신이 들렸다는 말.

〈북 왕국의 포로 시기(721년)〉

- 이 적대감은 포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(464-438)에도 분명히 나타남.
-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을
‘거룩한 자손’ (holy seed 에스라 9:2) 또는
‘충성된 남은 자’ (faithful remnant 9:15)라고 부름.

-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섞이고, 땅이 더러워졌으며 이방신을 섬김으로 더럽고 가증함. (스 9: 11)
- 바사의 관리였던 산발랏의 지휘 하에 사마리아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방해함.(느 6: 1-14)
- 포로 후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들을 멀리함.
-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과 그 후계 프톨레미 왕가는 두 민족 간의 긴장을 더 악화시킴.
- 알렉산더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함. 유대인들은 이를 이방 제단으로 여김.
- 마카비 폭동 때에(165b.c) 둘 사이에 최종적 분열이 일어남.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잔인하게 파괴함.
- 그의 정책은 헬라 문화를 완전히 불사르는 것.
- 기원 전 128년에 그리심 성전을 불사름.
사마리아 편에서의 보복이 일어남.
이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인간의 뼈를 뿌림. (6-9년)
20년 뒤에,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잔학 행위가 일어남.
그리심 성전에 남은 물건들을 가지러갔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임.

**사마리아인들은,
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리심 성전을 회복할 것을 기대.
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을 기대.**



1. 복음은 사회 경제적, 종족적 장애를 넘어서.

4장, 14장, 16장의 평화와 선교는 문화와 종족의 장애물을 넘음.

- 1) 사마리아 여인이 죄로부터 놓임 받음.
- 2) 요4:26 이하: 로마 관리의 고백과 함께 가정이 구원 받음.
종족, 종교, 국가적인 원수들이 다 무너짐.
- 3) 요4:38의 추수하게 된 밭은 사마리아인과 타인을 포함함.

2. 갈등의 현실: 3 차원

- 1) 우주적 차원 요12:31
- 2) 종교적: 주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.
- 3) 정치적: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부딪힘.
‘세상의 구주’ (4: 24)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
사용된 칭호.
하드리아나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는 soter tou kosmou.

soter tou kosmou
‘the Saviour of the
World’ 세상의 구주

3. 선교와 평화.

1) 선교와 평화

요한 4:1-42절과 20:19-23

선교와 평화(평강)는 서로 연결된 개념.

"나도 너희를 보내노라!"

평화의 은총은 제자들을 보내는 중요한 주제.

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평화.

* 20장에서 평화와 파승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.

2) 성령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심.

요20: 22절: "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!"

14, 16, 20장: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, 승리를 약속함. 이는 종말론적인 승리. "다 이루었다." (It's finished!)

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녀의 공동체의 이야기는, 미움과 박해의 세상에서 구원의 빛, 변화, 평화, 화해를 상징함.

4. 믿음과 영생

-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울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.
4: 1-42과 20: 19-23절의 목적, 이 둘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말함.
- "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." (20: 31)
- 선교 없이는 평화가 없고, 화평케함이 없이는 선교도 의미가 없음.

5. 선교, 평화, 하나님께 영광!

- 선교와 화평케함이 진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.
- 원수의 땅으로 가심 ▶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심 ▶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함 ▶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. (이것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놓여있는 이유가 아닐까?)